

2015년 World Allergy Congress 후기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 권혁수

2015년 10월 14일(수)부터 17일(토)까지 4일 동안 서울 코엑스 전시관에서 제24회 세계알레르기학회(World Allergy Congress)가 4일동안 열렸습니다. 전 세계 알레르기 연구자들에게 한국의 학문 수준을 알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열렸기 때문에 놀러 다닐(?) 계획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서 어찌 보면 더 편하고 즐겁게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는 opening ceremony 사회자로 참여하면서 학회의 더 많은 면모를 볼 수 있어서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학회가 열리기 전날인 13일 오후에 World Allergy Organization Board of Directors 회의가 먼저 열렸고 오후에는 국립중앙박물관 관광이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회자로서 외국贵宾들과 교류하고 봉사한다는 명목으로 참석했지만 사실 저는 2005년 용산구에 개관한 국립중앙박물관에 본 적이 없어서 내심 관광하고픈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을 헛갈려서 한참을 헤매다가 약속 장소까지 뛰어서 땀범벅인 상태로 헉헉 거리며 학회의 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하게 두 호텔 이름을 헛갈려서 고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위안을 삼았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WAO 회장인 Lanny Rosenwasser는 다리가 안 좋아서 절뚝거리며 걷지 못하셔서 관광을 포기하고 관광 후 저녁식사 장소인 한식당 [마루]에서 다른 WAO 행정 직원들과 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회장님을 즐겁게(?) 해 드린다는 사명을 띠고 한국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하며 WAO 직원들과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Rosenwasser 회장이 한국전쟁에 대한 소설을 읽었다고 하시면서 “인-민-군” “해이-방” 등등 여러 단어들까지 말하며 한국 근대 역사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박물관 관광팀은 영어로 설명해 주시는 봉사자의 도움으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식사 전에 한식당 바깥에서 와인 및 다과를 즐기며 하늘이 비치는 박물관 중앙의 호수 '거울못'의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한식당 마루는 전통 재료와 조리법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모던 한식을 선보이는 곳인데 외국분들은 매우 좋아했습니다만.....저는 개인적으로 "모던 한식"은 왠지 이도 저도 아닌 뭔가 2%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앗, 이런 건 블로그에 쓰는 평인데 여기에다 썼네요~)



밤이 되니 국립중앙박물관 야외는 정말 아름다움의 극치였습니다. 모든 해외 손님들이 귀가하시고 박물관 주변을 산책하며 야경을 즐기며 학회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부풀리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사회를 보게 되는 학회 첫날이 왔습니다. 학회장에 떨리는 마음으로 갔는데 등록 데스크가 매우 비좁고 줄은 길고 엄청 오래 걸리더군요. 사실 이번 학회는 다른 국내 학회 때와는 달리 안내와 음향 등등 여러 면으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것을 WAO에서 직접 계약한 외국 PCO(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 회사가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운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local organizing committee 에서 준비를 할 수 있었다면 당연히 꼼꼼하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이런 불편함이 전혀 없이 더 멋진 학회가 되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opening ceremony 때 이야기할 대본을 읽고 수정하고 연습을 하며 지냈습니다. 오후에 리허설 때 맞추어 볼 때까지는 정말 많이 떨렸습니다. 다행히 리허설이 끝나고 마음은 많이 편해졌고 그날 오기로 한 티아라, 다이아, 샤논이 기다려지게 되었습니다. 리허설 때는 암전하게 사회를 봤는데 사실 마음속으로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선글라스를 끼고 강남스타일 말춤을 살짝 추는 거였습니다. 문희범 교수님께서 "혁수는 사회를 보고 그냥 내려오지는 않을 거야"라는 기대가 찬 무언의 압력(?)이 저를 그 지경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사회를 보다가 티아라를 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바로 직전까지 선글라스를 낄까 말까 고민을 수십 번도 더 했다가..... 결국 온 에너지를 용기로 불어 넣어 선글라스를 끼고 케이팝을 소개하면서 강남스타일 말춤을 살짝 쳤습니다. 느낌은 1분은 춘 것 같은데 실제로는 3초만 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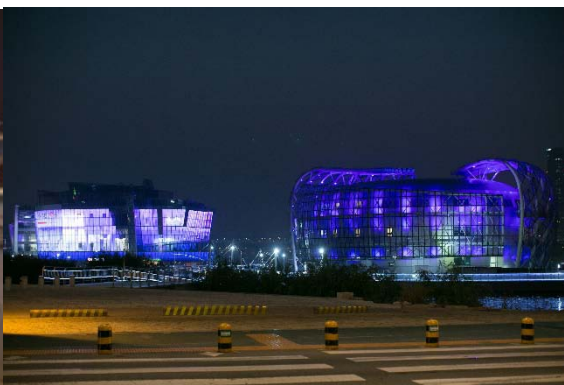


어쨌든 나름 분위기를 올리고 티아라를 거창하게 소개했는데 웬걸..... 뒤 무대와 음향팀과 소통의 문제로 (외국 PCO가 음향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티아라는 나오지 못하고 제가 무안할 정도로 수분동안 아무 것도 못하고 텅 빈 무대만 남게 되었습니다. 지루한 기다림 끝에 나온 티아라! 그런데 음향의 미숙으로 첫 노래는 아예 마이크가 안 켜져서 노래가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나마 그 이후로 회복이 되었고 다이아의 성실한 공연 및 샤논의 매우 멋진 노래로 축하 공연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제 3초 말춤이 하이라이트였다고..... 제일 친한 친구 한 명만 이야기를 해줘서 힘을 얻었습니다. 길고 긴 시상식이 끝나고 welcome reception의 화려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급 음식 중 가장 맛있는 음식은 떡볶이와 비빔밥이었습니다.

두 번째 날 학회에서 좋은 발표를 많이 들을 수 있었고 지적인 유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날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서초구 한강변의 세빛섬(Floating Island)에서 Faculty Dinner가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 가보는 장소여서 아름다운 장소에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와인/맥주와 간단한 안주와 함께 한강 경치를 바라보며 해외 연구자들과 격 없이 대화를 나누고 즐겼습니다. 박해심 교수님께서 예쁜 한복을 입고 오셨는데 수많은 외국분들이 같이 사진을 찍고자 줄을 서서 유명 연예인이 온 걸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식사도 맛있었고 예술적인 성악 공연도 정말 좋았습니다.



이번 학회에서는 많은 한국 연구자들이 훌륭한 발표로 전세계와 학문적 교류를 하였고 많은 젊은 연구자들이 우수 구연 발표상과 포스터상을 수상했습니다. 많은 젊은 연구자들이 국제 무대에 데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 열린 최대 규모의 국제 알레르기학회를 경험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국제 학회가 열린다면 저도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때는 Daddy 춤을 오래 춰도 되겠죠?